

안녕하십니까 ?

너무나 늦게 인사 드려 죄송 합니다

이제서야 안전 하다는 의사의 확진을 받고 보니 119대원의 신속한 출동으로 인하여 생명을 구조함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많은데 같은 시간에 연락을 하였어도 40-50분이나 걸려 뒤늦게 응급실 도착 하였으나 119대원은 불과 3분도 안되는 시간에 출동하여 환자를 수송하고 인명을 구조함은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참으로 자식들 보다 낫은 호도하는 호자들이라 칭할수 있겠습니다

현실은 서구사상인 개인의 절대주의는 우리나라의 호 사상을 완전히 밀어내고 사회의 기본질서인 가족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 시키고 말았고 절으로는 예의와 범절을 지키고 친절하것 같지만 속으로는 "부모는 부모" "나는 나" "너는 너" 라는 생각이 기본이 되고 극히 이기적이며 또한 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도 남을 부딪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며 인간성을 찾아 볼수 없는 상막한 세상이 되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자유주의 현상은 개인화며 이러한 개인의 절대화는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결국 공익을 희생 시키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골몰하는 천박한 이기주의로 변질 되었고, 그러한 개인의 권리를 절대화 하는 자위와 평등을 인간사회에서 상호신뢰를 침식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사회 속에서도 119가 화재를 진압하는 용감 무쌍한 대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백절불굴의 감투 정신을 발휘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조하는 헌신 봉사자들을 생각하면 마음 든든하고 감개 무량 합니다

일전에도 저를 구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의기 양양하게 음료수 한 박스를 사 들고 방문 했으나 서장님께서는 우리는 할 일을 마땅히 했는데 무슨 사죄냐 하시면서 끝까지 거절 하심을 생각 할때 너무나 청렴 절백 하심을 느꼈습니다

소방서 라는 기관은 권력기관도 아니고 사업기관도 아니고 청탁기관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재산과 생명만을 구조하는 기관인데 왜 이렇게 완강히 거절 하는가 하고 서운 했습니다

제가 가끔 병원에 환자를 방문하러 갔을 때도 보았습니다 마는 119대원이 담을 뿔뿔 흘리면서 환자를 응급실로 수송을 했어도 어누가 음료수 한 캔을 마시라고 주는것을 못 보았습니다

현실 사회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천박한 이기주의로 변질 되어 훈훈한 인간성을 찾아 볼수 없는 삭막한 세상이 돼 버린것이 안락갑기만 합니다

서장님! 용기를 갖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우리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조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 하시어 살기 좋은 이 사회를 창조 하시는데 선구자가 되어 주실것을 부락 드리면서 두서 없이 자필로서 상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기 2015년 7월 5일

이 순 일 배상
송 훈 - /홍